

이름은 ‘긴급’ 동작은 ‘늘보’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의사결정·실행 기구 달라 늘 ‘뒷북’

지난 5월 27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9천여 명, 부상자가 1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 현지로 전 세계의 구호 운동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최대종단인 조계종도 6월 8일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진 1명을 현지로 파견했다. 선발요원이 현지에 도착해 필요한 구호물품을 구입·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계종이 ‘뒷북’ 재난구호봉사를 파견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봉사단 파견을 처음 발표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당시에는 의료진 중심으로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조직해 현지에서 의료구호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로 총무원이 업무를 쉬는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서 각국 의료진이 대거 몰려오니 다른 구호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급히 2차 회의를 열어 구호물품 지원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결국 실무자 한 명이 2주 후인 8일 현지로 출국했고, 12일에서야 본지에 합류했다.

반면, 기독교계 기아대책본부와

굿네이버스, 선한사람들 긴급구호팀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구호대를 투입, 6월 1일 1차 구호활동을 마친 상태였다. 불교계 NGO단체인 JTS도 지난달 29일 긴급구호활동가 2명을 급파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현장 대응이 늦다는 지적은 이번엔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스페인 생 17일 후인 1월 12일, 파키스탄 지진발생지역에는 사태발생 17일 후인 10월 21일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늦장대응의 원인을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없는 탓으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사무국은 복지재단이지만, 정책집행과 재정은 조계종 사회부가 담당하고 있다.

별도의 의사소통기구를 꾸리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타 구호단체에 비해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발의에서부터 봉사대원 모집 및 편성, 파견에 이르기까지 회의와 예산심의 및 몇 번씩 거쳐야 한다.

구호기금 확보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확충 없이는 재난구호활동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부에서 ‘자비의 연꽃’ 판매수

익을 통한 기금으로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금은 총무원의 승인을 거친 후에야 구호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회부는 상시적인 재난구호를 위해 2억여 원의 긴급재난구호봉사대 구호활동비 책정을 예산으로 올렸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또 의료인, 통역인 등의 전문인력 충원과 재난구호전문가 양성, 해외 재난구호활동 매뉴얼 작성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인 복지재단측은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금과 의사결정구조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복지재단이 별도의 예산책정이나 인력 없이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떠나는 것은 무리”라고 손사래를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 박정규 팀장은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현재 종단 내 독자적 구호단체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라며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와 같이 법인화해 예산과 조직을 별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my@buddhapia.com

“관리부실에 책임 통감”

태고종, 일산 황룡사 관련 사과성명 “조사진행중 PD수첩 방송돼” 해명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6월 6일 MBC PD수첩에 방영된 경기도 고양시 황룡사 주지 해안 스님의 무속 행위와 관련, 7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태고종은 성명서를 통해 “2005년 여름 총무원에 해안 스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담당자가 1차로 사실 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진정내용을 극구 부인해 일단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며 “올해 5월 중순 재차 진정이 이뤄져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이 방송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태고종은 “방송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승가에서 있을 수 없는 흑세무민한 행위로서 징벌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결과가 발생했는데 대해 종단의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또 “종단에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종헌·종법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종단에서는 승려의 분함과 사찰의 운영 실태를 일제 정비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

증 없이 제보자들만의 의견을 듣고 재연을 통해 구성하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스님들까지 본인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통해 일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아무런 그 의도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6월 6일 ‘폭박한 신도, 대박한 스님’이라는 제목으로 황룡사 신도 12명이 일산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 고안지청에 해안 스님을 집단 고소한 사건을 방영했다.

PD수첩은 신도들의 증언을 통해 해안 스님이 △시체측은 물을 좋은 약물이라고 속여 돈을 받고 팔았던 점 △신도들에게 구병시식을 거의 강제로 유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점 △암을 고치는 신통력을 가진 신도인양 거짓 홍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이 방영 된 후 MBC 시청자 게시판과 태고종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어떻게 수도계 안 받고 승려로 행세할 수가 있느냐’ ‘불자로서 너무 부끄러웠다’ ‘태고종은 뭐 하고 있느냐’ 등의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주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날 회의의 주된 관심은 역시 문화재 관료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불가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정부여당과 국회의 동의아래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합동징수 해온 공원입장료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생략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방안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부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문화연대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사실상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징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

이들은 개별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해 불교문화재에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정서를 등에 업고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문화재 관림의 의지가 없는 일반 등산객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조계종의 입장에서도 공원입장료가 폐지된 후 사찰에서 단독으로 매표소를 두고 문화재 관람료만 단독 징수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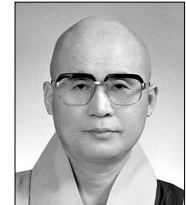
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다. 1월 현대불교신문이 관람료사찰 관계자 6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장기적인 폐지’를 꼽았을 정도로 불교계의 관람료 징수는 자유스럽지 못한 문제다. 때문에 관람료 징수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방안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종단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기획실 관계자는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편입부 석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사찰의 대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의 주된 내용은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제적 분석과 사찰 내 국가 지정문화재 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 산정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관람료 수입변동에 따른 재정 대안 등”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관람료 단독 징수에 따른 시비를 줄이기 위한 징수위치의 문제, 국민들의 사찰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 사찰 박물관 수준의 이용객 서비스 확충 등도 조계종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용수 기자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 입적 12일 범어문도당 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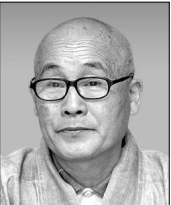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동국대 이사 성오 스님이 6월 8일 부산 운수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62세, 법랍 47세. 성오 스님의 영결식은 12일 범어문도당으로 치러졌다.

성오 스님은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부터 범어사 대웅사 동화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38년간을 성만했다. 2001년부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했다.

남동우 기자

풍주선원장 범주 스님 입적 4일 청주청원사암련휴



청주 풍주선원 선원장 범주 스님이 6월 4일 입적했다. 세수 66세, 법랍 57세. 범주 스님의 영결식은 풍주선원에서 청주청원사암련휴장으로 7일 치러졌다.

범주 스님은 해인사 조계사 직지사 전문강원을 수료하고, 청주경찰서 경승실장, 청주교도소 및 소년원 교화위원으로 1969년부터 재소자 교화를 시작해 충청지역의 포교활동에 기여해왔다. 1994년 제12회 교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철 대전 총북 지사장

조계종 가사 ‘승복점’ 서 못 산다

가사원추진단 가사불사 시작

조계종 가사원 설립추진단(위원장 수현)은 6월부터 종단 가사통일을 위한 가사불사를 본격 시행한다. 조계종은 가사통일과 법제제도 정착을 위해 법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단공식 가사원을 설립하고 향후 모든 가사를 종단에서만 제작 배포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단최고법제인 대종사승랍 40년 이상만 25조명 시는 21조 가사를 수하는 등 조계종 스님들은 종단에서 제작한 가사를 법제별 조수에 맞게 수해야 한다.

총무원 관계자는 “가사가 시중에서 합부로 거래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가사원에서만 제작한다”고 밝혔다. (02)3412-7867 조용수 기자

남 208 · 여 120명 대상 31기 행사교육원, 8월 직지사

조계종 제31기 행사교육원은 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23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다. 남행자 208명, 여행자 120명 등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31기 행사교육원은 남행자 습의도감에 덕문, 여행자 습의도감에 용운 스님을 위촉했다.

남동우 기자

지진피해돕기 대법회 천태종 18일 서울삼통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삼통사(주지 세운)에서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돕기 자비실천대법회’를 연다. ‘지구촌 형제들에게 자비와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는 정산 스님이 법어를 한다. 우리은행 1005-300-921193, (02)496-3839 김주일 기자

간화선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

석조사에 교육도량...교수사 고우스님 등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지도인력을 양성한다.

조계종 교육원·포교원은 8월 14-20일 1주일 동안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12월에 1주일간 정진과정을 거치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교육도량은 총주 석조사 금봉선 원이며, 교수사는 각파사 태백선원 원이다. ‘지구촌 형제들에게 자비와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는 정산 스님이 법어를 한다. 우리은행 1005-300-921193, (02)496-3839 김주일 기자

기본교육기관(관원·기본선원·동국대 불교대학·중앙승가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단 스님과 재가자 모두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인정하는 선원장급 이상인 스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는 7월 4-6일 포교연구실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60만원.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이수 이후 부여된 명칭과 자격 위상은 추후 제방의 의견을 수렴해 종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2011-1911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동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圓 金井山人 牧牛堂 性悟大禪師 門徒葬 寂

訃 告

金井山 雲水寺 會主 牧牛堂 性悟 大禪師 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50(2006)年 6月 8日(陰 5月 13日) 午前 7時 17分 釜山 金井山 雲水寺에서 圓寂에 드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詩 : 佛紀2550(2006)年 6月 12日(陰 5月 17日) 월요일 午前 10時

■ 永訣式場 : 金井山 雲水寺

■ 茶 毘 場 : 金井山 雲水寺 茶毘場

證 明 : 법전 지유 지백 능가 지혜 지란 지현 정관 고산 대정 일미 백운 무진장 선용 흥원 향운 선대 성현 홍교 도근 해운 창도 법운 여현 혜관 담연 계전 반월 영환 명선 문산

葬儀委員長 : 대성

葬儀副委員長 : 일원 관조 현성 중상 인가 무비 통광 일석 지현 영배 장운 영담 해림 정병

講 義 : 홍교

葬 儀 委 員 : 지만 지현 동광 효림 성직 성일 정휴 도후 도완 정광 원담 진구 장곡 원경 정목 선광 범동 범보 혜승 법광 장직 무이 장주 종광 향적 선가 종분 정인 이암 기준 도문 설승 범조 평상 일화 환공 의연 진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원우 중원 광조 범경 보원 해림 초격 지옥 정문 원택 중연 학담 지하 법진 정호 도가 정안 덕문 호진 장운 성관 원법 정도 수현 분가 도문 윤담 풍룡 계호 경륜 정성 해린 해린 각원 각우 각진 각현 각명 각현 각하 경찬 경호 고봉 공마 광원 광진 광만 구도 구주 금경 김산 녹연 능원 능혜 능혜 대원 대일 대해 덕운 덕진 도립 도안 도안 도영 도진 도현 도희 동성 동수 동우 동계 동초 만상 만영 만석 명교 명현 목종 무공 무관 무구 무상 무자 무착 백련 범수 범운 범종 범천 범허 범현 범법 범명 범상 범성 범정 범안 범우 범일 범지 범진 범찬 범현 범산 범천 범문 범운 범일 보다 본원 봉곡 삼인 상대 상법 상운 상한 상현 서상 시현 석경 석종 석공 선재 석광 성근 성남 성만 성법 성본 성인 성진 성진 성진 승강 승을 수연 승원 승혜 신성 안도 약연 오산 완호 우담 운암 원각 원경 원광 원기 원명 원보 원법 원봉 원성 원어 원우 원옥 원운 원일 원진 원경 원계 원종 원학 원해 원영 원도 원주 원현 원길 자현 재범 적인 정경 정공 정근 정만 정목 정법 정오 정오 정일 기영 정한 정현 정호 종덕 종목 종선 종훈 중봉 중흥 중명 지명 지문 지상 지선 지성 지연 지오 지현 지현 지경 지현 지홍 지홍 진명 진석 진성 진성 진실 진오 진운 철암 철우 정강 정만 단독 해공 해문 해린 현강 현공 현우 현정 혜관 혜문 혜성 혜수 혜안 혜운 혜린 해일 해일 해강 해경 해조 해중 해진 해진 해중 해향 홍선 화랑 화중 효성 훈암

경문 계협 계호 광민 광석 광우 능희 도문 명국 묘선 무이 범수 보문 보원 복선 본각 상일 상화 선공 선행 성우 성진 성화 수경 수현 순행 윤담 일선 일신 일요 정표 정성 종찬 주성 주일 지원 지운 진옥 더욱 탄성 탄준 태영 현가 혜경 해법 해원 해린 해진 호준 휴학 흥륜

흥기상 유주형 황광규 이재창 이용섭

(관련신행단체) 운수사 신도회 일동, 운수사 총동문회 일동, 지장회 일동, 관음회 일동, 대경회 일동, 금송회 일동, 운수사 합창단 일동, 금강 다회 일동, 불영회 일동, 운영회 일동, 회명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일동, 범어사 신도회 일동, 범어사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 일동, 부산불교연합회 일동,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일동, 부산 불교실업인회 일동, 부산불교교사협회 일동, 학교법인 금정학원 임직원 일동, 학교법인 해동학원 임직원 일동,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직원 일동

(교계인문사) 불교신문·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법보신문·주간불교.

執行委員長 : 문산

執行副委員長 : 경선

都監 : 석공 **義法** : 준옥 **儀典** : 정여 수불 범산 **知賓** : 지만 지중 해문 **財務** : 경홍 **弘報** : 도관 **書記** : 지철

接交 : 용학 석산 **講法** : 정산 의경 **院主** : 신익 **別務** : 고벽 **侍香** : 신옥 해공 계한 **茶角** : 운수사 신도회

門徒代表 : 초안

恩法上佐 : 석호 지광 설현 우정 함명 범일 경홍 계현 패성 선익 만운 예봉 범해 고벽 혼성 완해 월재 석상 해부 신묵 과진 환을

孫上佐 : 계환 양유 해공 포훈 오은선

在家弟子 : 조성태 나길준 김영록 이정연 임경운 안건규 최창용 정재홍 안일탁

千年古刹 金井山 雲水寺

金井山人 牧牛堂 性悟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會